# "가벼운 점심 반주 한 잔…생명 위협하는 범죄"

### **르프** 올해 첫 '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 광주경찰청, 지산유원지·서창교 등 5곳 동시 진행 2시간 동안 음주운전·5대 교통반칙행위 33명 적발

6일 오후 2시께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인근 도로.

도로 일대가 갑자기 '단속 현장'으로 바뀌 자 긴장감이 맴돌았다.

차선을 따라 주황색 트래픽콘이 일렬로 한 잔 운전'까지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세워졌고,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도로 중앙과 측면에 위치했다.

내리자, 경찰관이 "음주단속입니다. 잠 시만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단호하게 말

서 '삑'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운전자는 단 름을 통제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경찰 드 속 현장을 빠져나갔고, 경찰은 재빨리 순 론이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했다. 찰차를 이끌고 도주차량 추적에 나섰다.

에서 붙잡힌 운전자는 단속 현장으로 돌 쳤다. 아와 재측정을 받았다. 측정된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는 0.019%. 면허정지 단속도 동시에 이뤄졌다. 끼어들기, 꼬리 (0.03%)와 면허취소(0.08%)에 미치지 물기, 안전벨트 미착용 등 5대 교통반칙

이후 "한 잔이라도 드셨으면 운전하시 세우기 위함이다. 면 안 됩니다"라는 경찰의 말과 함께 해 당 운전자는 훈방조치 됐다.

이날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 회는 가을 행락철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평소 차량 이동량이 적은 왕복 2차선 광주 전역에서 올해 첫 '주간 음주운전 특 별단속'을 전개했다. 보통 야간에 이뤄지 던 단속을 낮 시간으로 확대해 '점심 반주

이번 단속은 동구 지산유원지를 비롯해 서구 서창교, 남구 노대사거리, 북구 청풍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멈춘 뒤 창문을 입터, 광산구 벽파삼거리 등 광주 5개 구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단속 현장에는 교통외근, 순찰대, 암행 순찰대, 기동대 등 69명의 경찰이 투입됐 한 운전자의 입김이 닿자 음주측정기에 다. 순찰차와 오토바이 30여 대가 차량 흐

단속은 철저했다. 경찰은 불시에 차량 300m가량 떨어진 동구 율곡초등학교 을 세우고, 단 몇 초 만에 음주 측정을 마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도로 질서를 바로

단속 결과, 안전띠 미착용(범칙금 3만 원)과 휴대전화 사용(범칙금 6만원·벌점



6일 광주 북구 청풍쉼터 삼거리에서 경찰관들이 기을 나들이철 '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 는 광주 5개 구 주요 교차로 음주운전 단속지점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15점) 등으로 다수가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 관계자는 "최근 점심시 간 반주나 낮 시간대 회식 이후 운전하는 사례가 잦아졌다"며 "이제는 야간뿐 아니 인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라 낮에도 단속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이어 "연말까지 불시 주간단속을 이어 해졌다"고 말했다. 가 시민들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경계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단속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반응은 다 위반자 32명이 적발됐다.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인근 주민 A씨(72)는 "경찰이 도로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 교통질서 인식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은 꼭 필요하다"면서 "굉음을 내는 폭주 족이나 신호·차선을 위반하는 얌체운전 자들도 보이지 않는다. 도로 환경이 쾌적

이날 광주 5곳에서 2시간 가량 단속해 음주운전자 1명 (면허취소 수준), 교통법

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며 "연말연시 유관기관 합동단속, 음주운전 특별캠페인 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광주경찰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 별단속에서는 총 857건이 적발됐다. 이 중 524건은 면허취소, 314건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

### '신분세탁' 사기범, 1년5개월 만에 검거 징역 2년 확정 뒤 잠적··· 이름·주민번호 등 바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실형이 확정 되자 신분을 세탁한 뒤 도주한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씨 (23) 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가짜 임대인 호가 모두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다 2023년 4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5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A씨에 대한 형을 집행 하려 했지만,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 었다. A씨는 가족이 전혀 없는 고아로, 휴 대전화 번호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소년이었을 때 벌

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 고 아워을 탐문한 끝에 A씨의 실제 신원을 확인했다.

와 생부를 찾았고, 같은 해 12월 새 신분 을 받으며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변 경했지만 이를 은폐,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이전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 른바 '신분세탁'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기존 인적 사항 을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하는 '판결문 경 정 신청'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3일 이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실형 선고 1년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5·18 성폭력 피해자들, 45년 만에 법정 선다

### 피해자·가족 17명 국가 상대 손배소···7일 첫 재판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A씨는 2022년 고아원에서 나 로 제기한 첫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5·18 조사위)가 공식적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 한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 진 위 전 조사팀장, 전문위원 등과 함께 행되는 법정 절차다.

당시 피해자들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당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군인의 폭력 속에 겪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10 트라우마는 평생을 지배했다. 하지만 국 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침묵했다. 피해자 들은 단 한 번도 공식 사과나 배·보상, 치 유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국가의 침묵 속에서도 진실과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12일 5·18민 회복의 길을 만들고자 스스로 '회복의 애 피해까지 국가의 책임을 묻는 절차"라 길'을 만들었다.

지난해 8월29일 피해자들과 5·18조사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 자 모임인 '열매'를 결성했다. '열매'는 매 달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 '국가폭력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최초의 지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치유하는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해자와 연대모임을 갖고, 해외 언론 인터 뷰를 통해 5·18 성폭력 문제를 국제사회 에도 알렸다.

단체로 새 출발할 계획이다.

하주희 변호사(법률대리인)는 "이번 소송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자가 집단적으로 제기한 첫 재판으로, 피 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2세대의 생 며 "국가폭력 피해를 얼마나 충분히 회복 시킬 수 있을지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매는 재판 당일 오전 9시10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진실과 치유 퍼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간 단속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 부마민주항쟁 성폭력 피

열매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비영리민간

포먼스'를 연다.

## "형은 대학원생이 아니라 노예"…전남대 교수 갑질 규탄

### 유족·시민단체, 철저한 진상조사·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불평등 권력관계·방조 등 지적···산재·민형사 소송 예고

"형은 대학원생이 아니라 노예였습니 배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전남대학교 교수의 갑질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20대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 적했다. 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 남지부 등 12개 시민단체는 6일 광주 북 구 전남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는 교수 갑질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와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즉시 공 다. 양반이 종 부리듯 교수는 학생을 지 개하고, 가해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요 구했다.

단체들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학 연구공동체의 뿌리 깊은 구 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 수-대학원생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 △ 과중한 비연구 업무 △폭언·사적 심부 유족들은 "산재·형사·민사 등 모든 름 등 부당지시 △학교의 방조 등을 지 피 심부름, 현금 인출, 연구실 회식비 영

> 이들은 "지도교수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리게 하고, 학생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써야 할 학생 인건 비를 회수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며 "심지어 당근마켓 중고물품 구매와 커



광주 시민사회가 6일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는 교수 갑질 사건 의 진상조사보고서와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해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수증 수정까지 시키며 이를 제대로 하지 들이 교수의 영향력과 학업 손실 우려로 않으면 협박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고, 뒤늦게 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국 대학원생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절망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대학원생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 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숨진 대학원생 이대원 씨(24)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사촌 누나 등도 참석해 가해 교수와 대학 측 을 비판했다.

동생 이승환씨는 "형은 몸이 아파도 교수 허락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며 "가해 교수들은 제자를 학생으로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

이어 "앞으로 대학원 교수들이 학생 들을 지배하는 구조적 관행을 없애겠 다"면서 "연구실의 부당함을 말하지 못 하고, 끝내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진 상태 로 뛰어내린 형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남대에서는 지난 7월13일 대 학 기숙사 인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 던 대학원생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교수진의 사적 심부름 등 갑질 정 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지도교수와 연구교수 2명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 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술 먹고 고속도로 운전

02:45 / 15:32

08:03 / 20:42

03:29 / 16:08

<u>밀물 (고)</u> 10:07 / 22:10

✔마년틱 ○…광주 고속도 로에서 음주 상태 로 운전한 40대 남성 2명이 잇따 라 적발.

6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전 날 오후 10시께 서구 유덕 톨게이 트 인근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 서 4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 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과 40분에 잇따라 적발됐다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혈중 알 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 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

서부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음주운 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 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여서 엄 정히 대응하겠다"고 당부.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광양항 상선서 동료 찌른 20대 외국인 선원 구속

전남 광양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 선원이 구속됐다.

여수해경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접안 중인 마샬 제도 국적 자동차 운반선 LIBERTY KING호(5만5729t)의 외국인 선원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 시 30분 광양항 컨부두에 입항 중인 상선 에서 30대 남성 동료 B씨를 수차례 찌르 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다 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

A씨는 평소 동료 선원이 자신을 무시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 을 품고 있었고, 피해지를 살해할 목적으

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해경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